

01 교회소식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다

추수감사주일, 응답과 축복의 통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성료, GCN방송 유럽기독교방송인협회 콘퍼런스 참가 소식

02 생명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03 기획특집

성결을 향한 '느낌' 바꾸기

주님을 닮으려면 육신의 정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느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꿔 나감으로 마음 안의 죄성들을 신속히 벗어버리자.

04 간증

응답과 축복의 비결

참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청력과 시력이 회복된 김용성 집사와 주일 성수를 통해 행복을 찾은 일본 아카세 사유리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65호 2016년 11월 2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난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는 올 한 해도 가난과 질병, 재앙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최상품의 곡물류, 근채 및 엽채류, 과일류 등 총 297종으로 아랫단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여선교회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시설관리국, 차량국, 레위 및 만민봉사대가 함께한 이 단 장식은 지교회 및 남선교회총연합회, 기도제물연합회, 에스더회, 청년선교회연합회, 가나안선교회연합회를 비롯한 뜻있는 성도들의 찬조로 이뤄졌다.

2016년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성료



만민기도원 주최로 열린 42일간의 기도 축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마지막 날인 지난 11월 20일(주일) 저녁, 시상식에서 성도들은 '영광의 잔치'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주 안에서 변화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언약에서 함께하는 행복을 표현한 '영광의 잔치'는 이번 기간 중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인도로 가장 많이 불린 찬양이다.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지난 10월 10일부터 매일 밤 9시부터 11시 40분까지(금요일은 금요철야예배로 대체, 주말은 11시까지) 성령 충만한 찬양과 더불어 불같은 기도로 진행된 2016년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생중계 되어 국내외 지교회에서도 함께하였다.

시상식은 이수진 목사(교역자회 회장)와 신동초 목사(신학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만민기도원 찬양팀과 예능위원회 소속 새렘국악선교단, 글로리아워십팀, 주성결 집사와 김정은 자매 듀엣 등 공연 사이사이에 추첨을 통해 100명의 성도들에게 상품권을 증정했다.

주최측인 만민기도원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한 성도 전원에게 텀블러를 증정했으며, 대상을 차지한 백순옥 집사(1대대 3교구)에게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특별한 상이 주어졌다(아래 사진).



마지막 순서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성도들을 위한 축복기도 시간이 있었다. 산상기도 중인 이목사는 전화 연결을 통해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진리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더 큰 축복의 해가 될 2017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갈 것과 성도들이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다.



2016 FEB(유럽기독교방송인협회) 콘퍼런스 참가한 GCN방송

순수복음방송 GCN방송(이사장: 이재록 목사)이 지난 11월 17일(목)부터 20일(일)까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개최된 '2016 FEB(유럽기독교방송인협회) 콘퍼런스'에 참가하였다.

유럽, 북미, 호주, 아시아 등에서 18개국이 참가한 이번 콘퍼런스는 유럽 기독교방송의 현황과 도전,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토론회, 성경공부 등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GCN방송 사장 이정호 장로는 만민중앙교회의 방송선교사역을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향후 사역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GCN방송은 첨단 방송매체를 통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담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해외 170여 개국에 송출함으로써 세계 선교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네”
(요한복음 11:40)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1:21~22). 물론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시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마르다는 창세 이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을 받으려면 지식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하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셨지요.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 하였습니다(요 11:25~27).

마르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결국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 무덤에서 나오는 체험’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오셨습니다. 1982년 교회 개척 이래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들을 늘 보여주시며 더 큰 권능, 더 새로운 차원의 권능을 보여주신 결과 많은 성도가 믿음으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지요.

2.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기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만 보아도 예수님과 이 가족이 얼마나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이며, 한 가족처럼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자매는 ‘전갈을 보내는 이가 누구이며, 지금 어떤 상황이니 어떻게 해 달라’고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절친한 사이나 깊이 신뢰하는 관계일수록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지요.

또 어려운 부탁을 해도 거리낌이 없듯이,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과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평소 쌓아온 사랑이 신뢰의 바탕이 되었고, 이러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죽음이라는 문제도 능히 해결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와 그의 가족은 평소예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행함이 그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 드리는 행함은 참으로 감동적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지요. 이는 평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극진히 섬겼기에 나온 행함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후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느라 잘 주무시지도, 잘 잡수시지도 못하셨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시고자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요. 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고된 사역을 하셨습니다(마 8:20).

이를 잘 아는 마리아와 가족은 ‘어떻게 예수님을 편안케 해 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시면 자신들의 집으로 모셔 정성껏 공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는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했지요. 어떤 육적인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영접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

터 오신 분으로 믿었고, 함께하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마리아와 가족의 이런 고운 마음의 향이 전달되어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상대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된 이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마음이 밝히 통함으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뒤로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알아서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큰 권능과 나사로 가족의 ‘믿음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상황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평소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식지 않고, 고운 마음을 착실히 쌓아갔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들의 행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정녕 믿으심으로 크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참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여인으로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입니다(요 11:1~2). 그러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의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일까요?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요 11:6~7). 결국 병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요 11:17).

그러자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던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고백합니다(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예배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신속히 죄성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닦으려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미움, 혐기, 간음, 시기, 질투 등의 죄성(罪性)들이 있다.

이러한 죄의 성질을 좇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발동할 때 마음과 생각, 행함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요일 2:16).

그러면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해 신속히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육신의 정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느낌'에 대해 바로 알고, 그 느낌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깨달아야 변화될 수 있다.

'느낌'과 함께 마음에 심기는 '죄성'

오늘날 마약, 음란물, 폭력성 게임 등에 중독되어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마음에 '느낌'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날이 갈수록 이에 대해 더 세계 느끼고 싶어지니 중독이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눈에 모를 깊게 심은 것과 건성건성 심은 것이 뽑히는 데 차이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 심긴 '죄성'도 마찬가지로이다.

만일 음란물을 본다면 그 장면은 지식적으로 뇌세포의 기억장치에 입력되지만, 그 죄성은 느낌과 함께 마음에 심어진다. 그래서 선정적인 장면을 보면 예전에 심긴 그 느낌이 함께 올라오는 것이다. 한번 잘못 심어진 느낌은 빼내기가 쉽지 않고, 강하게 심어질수록 빼내기는 더욱 쉽지가 않다.

이처럼 마음에 죄성이 심길 때 느낌이 함께 입력되기 때문에, 반대로 죄성이 발동할 때도 그 느낌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혐기를 낼 때 '욱'하고 부글부글 올라오는 느낌,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할 때 냉랭한 느낌, 교만할 때 으쓱한 느낌, 음욕이 올라올 때 꿈틀거리는 느낌 등 죄성과 함께 느낌이 올라오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

죄성이 심기지 않으려면 '선한 느낌으로 심어야'

가령 혐기가 무엇인지 알아도 마음에 그 죄성이 없다면 혐기를 낼 상황에서도 그 느낌이 올라오지 않으니 혐기가 나지 않는다. 누군가를 미워해야지 생각해도 마음에 미움이라는 죄성이 없다면 밉거나 싫은 느낌이 없으니 미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느낌과 함께 죄성이 마음에 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같은 상황에서도 선한 느낌으로 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설움과 슬픔과 고통으로 느꼈다면 동시에 마음에는 욕심, 탐심, 질투, 미움의 죄성들이 심어진다. 그래서 성장한 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이 싫고 시샘하여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모나 주변의 가르침을 통해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을 때 기뻐하고 좋게 여기는 선한 느낌으로 심었다면, 성장해서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볼 때 함께 기뻐하고, 혹은 내가 좋은 것을 가졌다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가 서로 싸우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그 자녀에게는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심어질 것이다. 그러니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뺏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 "착하게 살아라." 해도 부모가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혐기 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의 마음에는 그 느낌이 입력되어 혐기에 대한 두려움, 공포, हि뵁이 생기고, 나중에 성장한 후에는 그것이 다시 분출되기도 한다.

부모가 실제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달려갈 때, 자녀에게도 '새 예루살렘이 저렇게 좋구나. 행복하구나.'라고 좋은 느낌으로 입력된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자녀에게 보인다면 자녀는 '새 예루살렘에 가려면 저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느낌이 마음에 심어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미 입력된 것은 '선한 느낌'으로 배신, 간음 등의 죄성은 '나쁜 느낌'으로

상대를 보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된다. 참 싫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느낌을 내 안에 계속 입력시키면 상대가 싫어진다.

상대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자 할 때에는 선한 마음으로 상대 입장이 되어 이해하려고 하고, 또한 상대 의도를 좋은 뜻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 나가다 보면 점점 그 느낌이 희석되니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처럼 죄성 중에는 선한 느낌으로 바뀌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나쁜 느낌으로 입력시켜야 하는 것이 있다. 미움, 욕심, 시기, 판단, 정죄 등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선한 느낌으로 바뀌려 나가야 하는 반면 배신, 간사함, 거짓말, 간음, 혐기 등은 나쁜 느낌으로 마음에 심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내를 지나가는 남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본다면 그 남편은 아주 불쾌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고 깨우쳐진다면 간음이라는 죄성이 아주 싫은 느낌으로 입력되어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죄성의 느낌이 아주 추하고 더러운 느낌으로 입력되면 죄성을 신속히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으면서 상대성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 안에 심긴 죄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느낌인 줄 모른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대는 죄악이 관영해 죄성의 느낌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중독되어 죄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의 죄악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든지 인간 경작을 통해 처음에 느꼈던 죄성의 느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를 깨달아 선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12 December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6. 11.27~ 12.3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계명 1-2
- 육체의 결여 8-10
- 창세기 강해 18-24
- 요한일서 강해 31-36
- 일곱교회 19-24
- 믿음을 축량하시니 15-19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1-15 (이수진 목사)
- 곧은 마음 (이미경 목사)
- 감사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30 (정구영 목사)
-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자 (조수열 목사)
- 마음 그릇 넓히기 (김원진 전도사)
-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이지영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13-14)
- 일곱달콩 어여쁜 울동 57
- 창조와 과학 24
- 내 마음의 찬양 42
- 모두 드려요 50
- English 15

해외성회 및 신규 프로그램

- 마지막 때 2
- 말씀 스페셜 12
- 러시아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8
- 권능 스페셜 12
- 회상 19

GCN TV 채널
ktolleh tv 882번

“장애 2급이던 제가 귀가 들리고 실명된 눈이 보입니다”

김용성 집사 (71세, 2대대 16교구, 5-1남선교회)

2015년 6월부터 갑자기 얼굴이 붓고 귀가 멍멍해지더니 양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코도 몹시 부어 심한 통증으로 숨쉬기조차 힘이 들었지요. 병원 진단 결과, 중이염과 비용종(코물혹), 축농증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까지 점점 떨어져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것이었지요.

병원에서 중이염과 비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상황은 악화되어 결국 2016년 4월,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오른쪽 눈도 더 나빠져 실명이 되어 빛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여러 병원을 가 보았지만, 귀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미 실명된 눈은 다시 살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 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전화 통화는 물론 대화 자체가 힘들어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마음이 답답하다 못해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살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지요.

저는 보청기를 사용하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니 하나님 권능으로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제 눈과 귀라 할지라도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았으련만, 세상 의학으로 해결해 보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 힘썼고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등 각종 예배도 참석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8월 초, ‘만민 하계수련회’ 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에 관련된 질병들을 많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기회라 생각했지요.

마침내 8월 8일 수련회 첫째날은 사집회 시, 당회장님의 전체 환자기도를 받을 때 눈이 맑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기적이 일어났지요.

제 오른쪽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쪽 귀 또한 수련회 이후로 점점 잘 들리더니 보청기를 빼도 사람들의 대화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은 더 좋아져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청력은 보청기 없이 설교도 잘 들리고 전화 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으며, 당뇨병까지 치료되어 혈당 수치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사랑과 정성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영육간에 축복을 받았어요”

아카세 사유리 집사 (47세, 일본 마이즈루만민교회)

스물네 살 때, 저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쯤 지나자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고, 그 후 12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지인의 전도를 받아 오사카만민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과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집에서 쫓겨나가 하면, 매를 맞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힘겨운 생활의 연속이었지요. 그래도 남편의 핍박에 시달려 교회에 나가지 못할 때는 저를 전도한 이와모토 요코 집사님 댁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퇴근길에 교회에 들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들을 보여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의 손가락 끝에 아주 큰 티눈이 있었는데,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뿌리고 딸과 함께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다음날, 티눈이 빠지더니 이후 살이 차올라 원래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8년,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헤어져 아이 셋을 데리고 고향에 가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워낙 시골인지라 교회가 없었는데 차로 2시간 거리에 마이즈루만민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해졌고, 안정적인 직장도 구할 수 있었지요.



그러던 2016년 4월, 직장에서 20kg 정도의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굽힌 채 간신히 집에 왔지요. 다음날에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일까?’ 궁구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통회자복을 하니 신속히 회복되어 그날 오후에는 출근할 수 있었지요.

이 일을 통해 저는 ‘이 정도쯤이야.’ 하며 세상을 취했던 것을 버리고, 직장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승진하고 월급이 인상되는 축복도 받았지요. 오랫동안 불행한 삶을 살던 제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일본 마이즈루만민교회 전경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에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지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905-2419, 010-2276-1014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